

- **주요 뉴스:** 미국 금융시장, FOMC 발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논쟁은 지속
 - 미국 백악관, OPEC+의 증산 거부는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
 - 영란은행, 시장 예상과 다르게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0.1%)를 동결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을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반영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5%],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경기회복 기대와 기술주 강세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주간 고용지표 등이 매수 증가로 연결
 유로화 가치는 0.5% 하락, 엔화는 0.2%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기 금리인상 관측 약화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원인이 작용

※ 원/달러 1M NDF환율(1187.1원, +3.4원) 0.3% 상승, 한국 CDS 하락

		11/4일	11/3일	전일대비			11/4일	11/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680.1	4,660.6	0.42%	국채 금리 10y	미국	1.53%	1.60%	-7bp
	유럽	483.21	481.22	0.41%		독일	-0.22%	-0.17%	-5bp
	중국	3,526.9	3,498.5	0.81%	CDS 5y	한국	18bp	19bp	-1bp
	일본	29,794	29,521	0.93%		중국	46bp	46bp	0bp
	한국	2,983.2	2,975.7	0.25%	위험 지표	EMBI+	-	379	-
환율	달러지수	94.33	93.86	0.50%		VIX	15.44	15.10	2.25%
	유로화	1.1554	1.1612	-0.50%		WTI유	78.81	80.86	-2.54%
	엔화	113.76	114.01	0.22%	원자재	구리	432.1	432.1	-0.01%
	위안화	6.3972	6.4066	0.15%		금	1,792.0	1,769.8	1.25%
	원화	1,182.6	1,181.6	-0.0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금융시장, FOMC 발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논쟁은 지속

-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다고 언급. 그러나 시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금리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가 존재
-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3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35%로 제시.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이 제한적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금리인상이 연준의 예상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음을 반영
- WallachBeth의 Mohit Bajaj는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다만 일부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제한은 기술적 요인에 따른 매수의 영향이며, 국채금리의 움직임만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백악관, OPEC+의 증산 거부는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

- 국가안보위원회는 OPEC+가 생산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을 지원할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난. 한편 이날 OPEC+는 미국의 2배 증산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을 기존의 계획대로 일일 40만배럴 확대하기로 합의

■ 미국 10월 5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6.9만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

- 이번 결과는 팬데믹 이전 평균인 22만건에 점차 근접. Contingent Macro Research는 노동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

■ 유럽부흥개발은행, 금년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에너지 가격 급등은 리스크

-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5.4%로 조정.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은 중부 및 남부 유럽의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ECB 이사, 고물가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인식

- 슈나벨 이사는 2022년 인플레이션의 목표치(2%) 하회 전망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또한 고물가 우려를 수용하여 조기 긴축정책으로 선회하면 경제성장과 고용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 유로존 9월 생산자물가, 전년동월비 16.0% 올라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

- 통계국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예상치(15.2%)를 상회. 전월 대비로는 2.7% 상승.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생산자물가의 큰 폭 상승으로 연결. 일부에서는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

■ 영란은행, 시장 예상과 다르게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0.1%)를 동결

- 통화정책위원회는 7대 2로 현행 수준 유지를 찬성.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 베일리 총재는 향후 발표되는 노동시장 자료들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

■ 중국 시진핑 주석, 산업 보조금 등 미국이 지적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

- 산업 보조금 이외에도 국영 기업, 디지털 경제와 무역, 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백신 관련 제품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되는 등 세계화가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견해 피력

■ 일본은행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을 방침

- 구로다 총재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했지만, 일본은행은 대규모 자산매입 종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 연준 혹은 ECB가 직면한 상황과 일본은행이 처한 현실은 다르며, 계속해서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0월 세계식품가격지수는 133.2로 10년 만에 최고치

- 이번 결과는 전월(129.2) 대비 4.0 상승하며 2011년 7월 이후 최고 수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이 다소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무역수지(억달러): -809, 8월(-728), 예상치(-802)
- 독일 9월 공장수주(전월비): 1.3%, 8월(-8.8%), 예상치(2.0%)

■ 주요 경제 이벤트(11/5 현지시각 기준)

- ECB 데 쿼도스 부총재 강연, 미국 10월 고용보고서, 9월 신용잔액
- 유로존 9월 소매매출, 독일 9월 산업생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채권시장 혼란, 여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 - WSI

(Bond Markets Flash Turmoil, and No One Else Much Cares)

- 최근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호주 수익률곡선 제어(YCC) 철회, 영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채권시장에 혼란이 가중. 하지만 주식 및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금리인상의 속도와 장기적인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
- 특히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또한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병존

■ 인플레이션 압력, 공급망 문제만으로 국한하기는 곤란 - Financial Times

(Inflation is one thing not in short supply)

- 각국 중앙은행은 공급망 차질 등이 해소되면 물가상승세가 다시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놀리울 정도로 노동공급이 부족하고 노동수요가 강력한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출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진해지는 결과를 초래. 유럽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강조.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

■ 미국 연준의 탠트럼 회피, 확신을 갖기에는 좀 더 시간이 요구 - 블룸버그

(Powell Dodged a Taper Tantrum With Ease. That's Suspicious)

■ EU의 반도체 전략 전환, 실질적인 문제 해결 효과는 기대난 - Financial Times

(EU should put the brakes on its chips strateg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